

광주 하남3지구 삼국시대 대규모 마을유적 발굴



삼국시대 마을 유적지 1 수완지구 2 영천마을 주공 3 하남초등학교 4 하남 부영아파트

1500년 전 삼국시대 광주 하남지구에 대규모 도시 있었다

주거지·고분 등 493기 발굴

광주시 “개발사업 예정대로”

1500년 전에는 영산강 지류가 흐르는 지금의 광산구가 광주의 중심이었을까?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서 4~6세기 무렵 대규모 삼국시대 마을유적이 발견됐다. 이 지역은 광주시가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곳이다.

〈관련기사 16면〉

광주시와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강문화재연구원은 9일 하남동 154번지 일원 4만6487㎡를 발굴조사한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81기, 고상식(원두막 구조) 건물지 165기, 가마 4기, 고분 4기, 구(배수용 구덩이) 42기, 수혈(저장용 구덩이) 67기, 제철유구 1기, 저수유구 2기, 조선후기 토광묘 27기 등 모두 493기의 유구(遺構)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유물들은 대부분 생활도기다.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이 지역은 동쪽으로는 영산강과 풍영정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황룡강과 어등산이 자리하고 있다.

한강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주변의 산성동 유적 및 하남동 유적 등과 상호 연계한 자료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광주 지역 고대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유적은 중앙을 가로지르는 ‘Y’자 형태의 대형 곡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거지는 네모난 방형이 대부분이며 장방형도 일부 확인됐다. 주거지 대개는 기둥 네 개를 세워 지은 ‘ㄱ’자 형태고, 규모는 2.8~6m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상식 건물지는 중앙부 자연천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동신대 이정호 교수는 “이번 하남 3지구 유적과 인접해 산성동, 하남 2지구 유적이 위치하고 있고 광산구에서만 32개의 유적지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당시에는 영산강과 인접한 광산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했을 것”이라며 “하남 3지구 마을의 주인은 신라왕이 커지면서 이주한 사람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메르스 격리 3천명 육박 ‘돌아다니는 공포’

관련기사 2·3·6·8·14 면

서울 아산병원 등 3곳 추가
임신부 첫 감염에 초긴장
광주·전남 관리대상 38명
광산구청 직원은 음성판정

9일 메르스 환자가 8명 늘어 95명이 됐다. 사망자도 1명 추가 발생해 총 7명으로 늘어났으며 자가·시설 격리자는 3000명에 육박했다.

국내 최대규모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감염자가 발견됐다.

특히 임신부마저 1차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했던 40대 임신부 A씨가 병원 측에서 시행한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양성판정을 받는다면 국내에선 처음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의심 증상은 없었지만, A씨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재차 검사를 요청해 이날 오후 6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시행했고 병원 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급체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어머니를 만나러 응급실에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신부는 치료약물을 선택하는 데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감염된 후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제왕절개수술 등이 곤란해진다. 점에서 가임여성들 중심으로 메르스 공포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8시 현재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95명으로 늘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도 서울아산병원 등 3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늘었다. 메르스 격리 대상자 수는 이날 2892명으로 집계됐다. 자가 격리자는 379명 늘어 2729명, 기관 격리자는 5명 증가해 163명이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충남 아산시 등 4개 지역의 폐렴환자를 상대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으며, 메르스 확진 혹은 의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환



광주지하철 방역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용산동 광주도시철도공사 용산차량기지사업소 내 검수고에서 방역 직원들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한 전동차 연막소독과 손잡이 세척작업 등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메르스 현황 (전국·9일 20시 현재)

감염자	95명(전일대비 +8)
사망자	7명(+1)
감염의심자	1969명(+269)
격리자	2892명(+384)
격리해제자	607명(+24)
퇴원자	3명(+1)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일부터는 메르스 관련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www.mers.go.kr 혹은 www.메르스.go.kr)를 개설할 예정이다.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중인 광주·전남 지역은 이날도 확진환자는 없었으며, 메르스 관리대상자만 38명(병원 격리 2명, 자택격리 32명, 능동 모니터링 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는 23명이다.

광주 광산구청은 이날 직원 1명이 메르스 감염 의심 증세를 보여 구청 일부 사무실이 폐쇄되고, 직원 900명이 사무실 내에 대기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으나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해제됐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학교 ‘메르스 휴업 기준’ 만든다

교육부, 시·도교육감 간담회 ... 지역실정 감안해 적용

교육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학교의 구체적인 휴업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메르스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휴업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업 기준은 메르스 감염의 우려 정도와 교육적 입장, 학업 및 생활지도 등을 토대로 만들고 교육감들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적용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메르스 확산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보건당국과 협의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휴업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10일 휴업 기준을 교육청에 내려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또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메르스 격리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보건소와 교육청이 메르스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메르스 예방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을 일지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마神’ 양학선 금빛 도약
D-23
광주 U대회 GWANGJU 2015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A-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점
신성자동차(주) 광주 점사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경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180 CDI Style 1,461cc 1445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9.3km/ℓ (도시연비: 17.1km/ℓ, 고속도로연비: 22.7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99g/km
* A45 AMG 4MATIC 1,991cc 1590kg, AMG SPEEDSHIFT DCT 7-speed, 복합연비 10.1km/ℓ (도시연비: 9.0km/ℓ, 고속도로연비: 11.8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5g/km
* A180 CDI night 1,461cc 1445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9.3km/ℓ (도시연비: 17.1km/ℓ, 고속도로연비: 22.7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9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